



북 큐 레 이 션

- 이달의 추천도서 -

2026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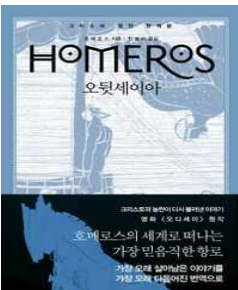
신화,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나를 만나다

#신화 #신 #영웅 #인간 #고전 #이야기



모든 여행엔 이유가 있다. 작가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의 여행까지, 오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홉 개의 이야기로 풀어낸 산문이다. 저자는 여행이 자신에게 무엇이었는지, 무엇이였기에 그렇게 꾸준히 다녔던 것인지, 우리는 왜 여행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여행의 이유를 찾아가며 그 답을 알아가고자 한다. 여행을 중심으로 인간과 글쓰기, 타자와 삶의 의미로 주제가 확장되어가는 인문학적 사유의 여행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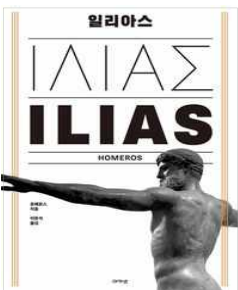
이윤기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오디세이아》는 《일리아스》와 함께 그리스 신화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서양 문명을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고전이다.

방랑 시인 호메로스에 의해 구전으로 전해진 이 작품은 그리스 문학의 가장 오래된 대서사시로 꼽힌다. 《일리아스》가 트로이 전쟁의 세계를 다루었다면, 《오디세이아》는 전쟁 이후의 10년의 이야기로 '귀향'과 '삶의 회복'을 이야기한다. 신화와 전설에 얽힌 극적인 모험과 반전 그리고 긴장감이 어우러진 이 서사는 고대 그리스인의 세계관을 비추는 거울이자, 신에 대한 경외와 인간의 운명,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철학적 여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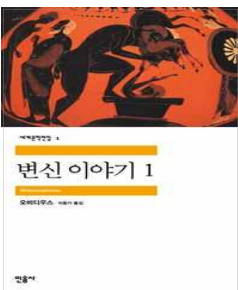
호메로스 지음 - 오디세이아 / 오딧세이아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스』는 현존하는 서양 문학 중 가장 오래된 서사시다.

『일리아스』 트로이 전쟁이라는 신화적 소재를 주제로 하여 불멸의 존재인 신과 인간들에 관한 서사시다. 트로이의 운명을 놓고 목숨 걸고 싸우는 영웅들과 이해관계에 따라 양쪽으로 편이 갈린 신들의 대격전이 숨가쁘게 펼쳐진다. 15,693행 24권으로 이루어진 이 한편의 장엄한 서사시 속에서 고대인의 문학적인 탁월함, 신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관, 인생의 가치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보게 된다.

호메로스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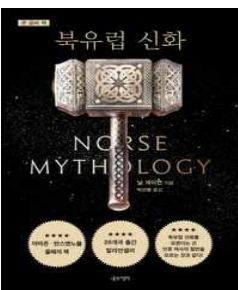


오비디우스가 신과 영웅과 인간에게 베푸는 대항연

성경과 함께 서양문화의 두 축을 이루는 천지창조에 관한 대서사시.

'변신 이야기 Metamorphoses'는 그 내용의 방대함은 물론 수려한 문체로 그리스-로마 신화의 최고 전범으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이 책에 담긴 세계에 대한 풍부한 모티프들과 시적 상상력들은 서양의 인문학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하늘이 열리던 아득한 때와 사람이 살게 된 시대 사이에 가로놓인 긴긴 세월을 일시에 뛰어넘는 신화적 경험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15개 장 128편의 신화를 담았다.

오비디우스 지음 / 민음사



이 책은 북유럽 신화를 현대적인 문체로 다시 풀어쓴 책으로, 오딘, 토르, 로키 같은 신들을 중심으로 북유럽 신화의 주요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화, 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먼저 떠올리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인류가 구축한 또 다른 세계를 발굴해 보여준다. 고대 설화를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진 이 책은 그 아름답고 우아한 세계에 존재했던 무한한 상상력을 선물한다. 문체가 현대적이고 유머가 많아 북유럽 신화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도 쉽게 읽기 좋다.

닐 게이먼 지음 / 나무의철학